우리는 환경보살…'부산불교환경연대' 출범

4월 20일 범어사서 창립식 열려

선언문서 '청정불국토의 길' 천명
녹색사찰 만들기 · 환경법회 확산
'일회용 줄이기' 등 7대 사업채택
기후위기 · 생태위기 해법 모색도
광주전남 · 울산 이은 3번째 지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지역 환경보호운동을 이끌어갈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가 출범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4월 20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창립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창립식에서 앞으로 불교의 불살생 이념에 입각해 자연과 생명을 위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창립선언문을 통해 '청정불국토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창립식은 △개회 △삼귀의 및 반야심경 △창립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 △등록증서 전달 △현판 증정 △취임사 △격려사 △치사 △축사 △임원 및 내빈 소개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고문 경선, 정각 스님, 불교환경연대 본부상임대표 법만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공동대표 목종, 정관, 하림 스님, 상임위원 원타, 정산, 마나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해 지도위원 석산 스님,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박동범 법보신문 지사장, 손정현 BTN영남총국 본부장, 유지호 불교신문 부산지사장, 오세룡 담앤북스 대표, 안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불교환경연대 세 번째 지부인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출범했다. 사진은 4월 20일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식 모습.

부산불교환경연대는 "불제자임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는 마땅히 환경보살이어야 한다. 환경보살이 아니면 삶터를 맑히지 못한다"며 "인간 중생이 제일인 줄 알고 뭇 생명을 업신여겼음을 참회하며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우리의 좌표로 삼아 먼저 내 마음을 맑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보살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주요사업으로 부산불교기후학교를 개최하고 녹색사찰 만들기 및 환경법회를 확산할 방침이다. 7대 실천사업으로 △일회용 사용 줄이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자원순환 캠페인 △발우공양으로 빈 그릇 운동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사찰경내 수행환경보전 자연보호 △지역사회 환경활동 연대 등을 이어간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만 스님은 안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환경보살로 앞장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 등록증서와 현판을 공동대표 목종 스님과 정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대원각사 주지이며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총재, (사)금강영관 대금강승문 이사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선학과 외래교수, 부산 동명대 외래교수, 경상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안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의 불살생 정신을 중심으로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되었다"며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부산을 재생하고자 한다. 부산시민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는 푸른 부산, 맑고 아름다운 부산이 되도록 불교계 환경운동의 다양한 길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불교환경연대 본부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이곳 부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길 기대하고 부탁한다"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의 불교환경연대가 함께할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온 생명의 벗이 되어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모든 일이 인과로 맺어져 있으며, 우리는 환경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 인(因)을 저질렀고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과(果)로 돌아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환경을 대하는 불교의 입장만큼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은 없다. 부산불교환경연대의 창립이 부산시민 불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1년 10월 불교환경연대 활동의 필요성을 모의하며 모임을 시작해 2021년 11월 26일 발기인 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2년 1월에 창립준비 회의의 후 2월에 불교환경연대 부산지부 창립 승인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부산불교환경연대는 고문 8명, 상임위원 15명,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14명, 감사 2명, 지도위원 22명, 운영위원 24명, 자문위원 22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108명의 임원 조직도를 구성해 출발을 알렸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광주전남 지부와 울산지부에 이어 세 번째로 창립한 지부이다.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창립23주년

4월21일, 진흥사서 기념법회 봉행
장학금 및 영양죽 1700만 원 전달



부산개인택시 법륜회가 4월 21일 부산 진흥사에서 '창립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황기훈)가 4월 21일 부산 진흥사 대광명전에서 '창립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륜회는 매년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장학금을 전달해 인재불사를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법륜회는 이번 법회에서 대학생 전법 포교 및 성장을 기원하며 부산대, 동아대, 동명대, 인제대, 대동간전, 해양대, 부경대 등 7개 대학에 각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에서 추천한 학생 4명에게 3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소화가 어렵거나 치아가 없어 영양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금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죽보드레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했다.

기념법회는 개회 및 회기 입장으로 시작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내빈소개 △연혁 및 활동보고 △사랑의 영양죽 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회장 인사말 △격려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법회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 황기훈 법륜회 회장, 정명희 부산북구청장,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김중권 부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법륜회 소속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황기훈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나아가 더 긴 세월을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고요하고 밝아지며 깊은 지혜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법륜회가 되자"며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정진 수행을 힘든 가운데서도 이어왔다.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기 법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살행을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불교의 참된 원동력이다"며 "오늘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장학활동도 뜻깊게 생각된다. 올해부터는 법회뿐 아니라 불교대학, 수행프로그램 등으로 신심을 키우고 발전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1999년 2월 11일 연산동 정수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나눔활동 및 자원봉사, 정기법회 등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매년 창립법회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지원금을 모아 소년소녀장학금 전달과 나들이 지원, 독거노인 연탄 후원, 쌀 나눔 등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사찰 · 단체 봉축행사 봉행

삼광사 · 광명사 등서 행사 다채


삼광사 등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사찰과 단체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봉행했다. 사진은 삼광사 봉축 점등식 모습.

불도 부산의 구 · 군 연합회 및 사찰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점등식 및 기념행사들을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4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하고 점등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증명 아래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를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삼광사는 경내에 등을 밝히며 일상회복을 통한 국민행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허망한 꿈속의 욕망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너와 내가 동체대비심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받기를 바란다"며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영제)는 4월 19일 부산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부산진구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 봉축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나투심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아울러 점등 이후 지역민의 행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기도 정진으로 의미를 더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이번 봉축점등 기간에 매일 오후 6시 30분 봉축탑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점등식에는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문 혜총 스님, 회장 영제 스님,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총무 도원 스님, 정정심인당 원상정사 및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서은숙 진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 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목종)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4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구남로 일대에서 '불기 2566년 해운대구불교연합회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번 봉축점등식은 해운대 바다 앞 관광 대표거리인 구남로에 처음으로 불을 밝혀 의미가 특별하며, 해운대 구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구남로에서 활동하는 상인에게 상생의 의미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해운대구불교연합회장 목종 스님과 수석부회장 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 前 해운대구불교연합회장 광진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해운정사 총무 신행 스님,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장영국 구남로 번영회장, 김화연 대륙광고 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4월15일 사상 이마트 광장 앞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성문 스님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들 각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라며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가 됐을 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사상이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4월14일 경내 지관전에서 전통등 · 지화 '지혜의 빛' 특별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목어, 별, 해, 십바라밀, 수박, 복주머니 등 다양한 모양의 전통등으로 복과 건강을 기원했으며, 특히 전쟁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토시등도 전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4월 15일 경내 금강계단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4월 15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122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은 천수다라니, 노사나불정근, 수계식 및 계첩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3사 5증사에는 전계대화상 주지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 승가대학장 보문 정한 스님, 교수아사리 율학승가대학원장 삼현 원창 스님이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대오 스님, 원타 스님, 범일 스님, 범종 스님, 원여 스님이 맡았다.

전계대화상 경선 스님은 "참과 거짓을 떠난 마음자리에서 발보리심 내어 수행하는 불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계의 청정함으로 보살이 되고자 발심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모산 성주사, 삼보일배 수행정진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4월 17일 성주사 일대에서 삼보일배 정진 수행을 진행했다.

삼보일배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봉축 표어처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진행됐으며 성주사 일주문에서 출발해 성주사로 올라가는 산책로 '깨달음의 길'을 거쳐 지장전에서 마무리됐다.

삼보일배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불모학당 수강생을 비롯해 성주사 포교사회, 성주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삼보일배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스님 인사말, 삼보일배 정진(석가모니불 정근), 발원문, 사홍서원, 공지사항,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진이다"며 "간절함이 공덕이 되고 정화의 마음, 초심이 되어 발보리심의 원력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련사, 산신각 낙성식 봉행



울산 백련사(주지 천도)가 4월 16일 경내 일대에서 산신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백련사 회주 대해 스님, 주지 천도 스님, 석남사 주지 일영 스님을 비롯한 김민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딜라잇 난타예술단의 도량 밟기, 난타공연이 이어졌으며 산신불공 및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헌공, 발원문, 축가, 베트남 원오도량 불자 천수경대비주합송, 인사말씀, 사홍서원 순으로 전개됐다.

주지 천도 스님은 "이 공덕이 모여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코로나 극복과 사회 안정, 나라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13기 입학



창원 진불선원(주지 무아)이 4월 1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선불교대학 제13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무아 스님, 이철헌 동국대 교수, 주선임 신도회장 및 박종배 동문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선현 12기 선불교대학 회장, 김태형 입학생 대표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무아 스님은 "사람 몸을 받기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며 "입학생들은 불법과 인연을 맺은 지중한 사람들이다. 부처님의 제자로 발심해 오늘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